

# 새터민 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구축

이선표\*, 고훈준\*\*  
경인여자대학교

## Building of Group Program for Female Saeteomin's Early Settlement

Seon-Pyo Lee\*, Hoon-Joon Kouh\*\*

Dept. of Tax Accounting, Kyung-in Women's University\*

Dept. of Practical Music, Kyung-in Women's University\*\*

**요약** 많은 새터민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 진입하면서 소비 생활 및 시장 경제활동에 있어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터민 중 69%는 여성이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정착하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만을 진행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새터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직무 교육프로그램과 정착 프로그램을 포함한 집단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새터민 여성, 탈북 여성, 집단프로그램, 직무교육비용, 통일교육비용

**Abstract** Many saeteomins to settle in South Korea, are materially affluent capitalist countries entered South Korea,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adapt so easily the consumer market and economic activity. In particular, development and support training programs for female saeteomins, 69% of total saeteomins are needed. Therefore, we need to support job programs that they settle in Korea normally and can be a reasonable economic activity. But, we need to operate be the group program because only proceed to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 is not enough to settle into a stabl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opose a group program for job training and a budget for operating the program to easily settle female saeteomins in South Korea.

**Key Words** : Female Saeteomins, North Korean Refugee Women, Group Program, Job Training Costs, Unified Training Costs

### 1. 서론

사회주의국가인 북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게 생활하던 새터민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본주의국

가인 한국에 진입하면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소비생활 및 시장경제활동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7]. 특히 갑작스럽게 변화한 환경에서 새터민은 정신적인 안정을 생각

Received 27 October 2013, Revised 27 November 2013

Accepted 20 Jan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Hoon-Joon Kouh(Kyung-In Women's University)

Email: hjkouh@ki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하기 보다는 생존의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난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터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정착하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적 독립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이라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3,4,6].

새터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면, 통제와 배급에 의해 생활하였던 습관에서 시장에 거래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다 보니 비합리적인 소비생활과 맹목적인 구매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구매활동에 있어서도 계획에 의한 구매보다 비합리적 충동구매, 힘든 생활에 따른 일확천금의 기대감이 큼에 따라 순리적인 생활보다 충동적인 활동, 금융상품과 금융관리에 대한 무지에 따른 자본시장의 적응능력 부재로 인한 혼란, 무책임한 경제적 원조요청 및 원조에 기대는 습관으로 인한 책임감이 부족한 행동, 조세와 사회보험에 대한 무지 등에 의한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8,9].

특히, 새터민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9%로 매우 많으며, 그들의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에 맞는 직무교육프로그램과 사회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관여가 필요하다[5]. 특히, 정규 대학교 중 여자대학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터민 여성의 교육에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자대학교에서 나설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대학교가 단순히 새터민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그들의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에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만을 갖고 새터민 여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쉽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집단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에 합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적용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터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집단프로그램인 직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수립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후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새터민 여성의 현황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집단프로그램을 구축하고, 4장에서는 집단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교육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 2. 새터민 여성의 현황

새터민 여성은 탈북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여성주민으로,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여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1].

탈북여성의 위상은 국제법상의 지위로서 난민의 성격을 가지며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유형의 난민으로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유형을 띤다. 1990년 이후 세계체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반발, 정치적인 불안과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으로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 등으로 정치·경제적 질서의 와해로 인해 일탈행동에 따른 처벌에 대한 인권침해로부터 도피가 난민의 길을 유발시켰다. 따라서 탈북여성은 국내외적으로 보호·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난민으로서, 북한을 이탈한 이주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또한 민족분단의 비극으로 인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분단의 고통을 겪은 탈북여성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북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인권의 관점, 난민으로서의 인도주의적 관점, 동포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새터민의 입국은 <Table 1>과 같이 2001년까지는 그 숫자가 1년에 200~300명 정도였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0명 이상 입국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7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새터민 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27%와 31%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탈출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무직인 상태(50%)와 노동자(38%)인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터민 여성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 직업이 무직 또는 노동자라는 의미는 한국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으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10].

따라서 새터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가이드 프로그램과 함께 이들이 직업훈련을 이수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할 직업훈련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하나의 집단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집단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을 역시 매뉴얼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1) Saeteomins immigration status by year

| Year      | Male  | Female | Total  | The proportion of Female |
|-----------|-------|--------|--------|--------------------------|
| ~1998     | 831   | 116    | 947    | 12                       |
| 1999~2001 | 565   | 479    | 1,044  | 46                       |
| 2002      | 511   | 632    | 1,143  | 55                       |
| 2003      | 472   | 810    | 1,282  | 63                       |
| 2004      | 624   | 1,272  | 1,896  | 67                       |
| 2005      | 423   | 959    | 1,382  | 69                       |
| 2006      | 512   | 1,510  | 2,022  | 75                       |
| 2007      | 571   | 1,977  | 2,548  | 78                       |
| 2008      | 608   | 2,196  | 2,804  | 78                       |
| 2009      | 671   | 2,258  | 2,929  | 77                       |
| 2010      | 589   | 1,813  | 2,402  | 75                       |
| 2011      | 797   | 1,909  | 2,706  | 70                       |
| 2012      | 402   | 1,107  | 1,509  | 72                       |
| 2013.03   | 87    | 233    | 320    | 70                       |
| Total     | 7,663 | 17,271 | 24,934 | 69                       |

### 3. 집단프로그램 구축

본 장에서는 새터민 여성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집단프로그램은 직업 및

취업훈련의 효과적인 이수를 위한 준비과정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즉, 북한식 사고방식과 북한 문화를 벗어나서 한국식 경제제도와 노동문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인성 및 문화 적응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향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직업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한국에서의 직업관, 노동규범, 사회적 시각, 인기직종 설명회 등이다.

둘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으로 주로 희망직업 게임, 희망직업훈련 게임, 안정적인 정착 프로그램 등이다.

셋째, 인성 및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의존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기대수준을 낮추는 프로그램, 공격성(분노) 조절 프로그램, 준법정신 프로그램, 의심과 경계해소 프로그램, 이기심 해소 프로그램, 억지 해소 프로그램, 자신감부여 프로그램, 비정상적 경쟁 해소 프로그램 등이다.

넷째, 행태적 측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언어의 이질화 해소 프로그램,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취업서류 이해, 생애설계 등이다.

다섯째, 정착지원제도 이해 직업지도 프로그램으로 주로 취업보호제도, 직업훈련제도, 서식작성 등이다.

여섯째, 한국 사람과 함께 하는 생활을 위한 공동체 삶의 훈련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현장체험학습에 의한 사회통합훈련(예, 직무캠프, 단기직장문화체험, 지역사회 자치모임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집단프로그램의 수행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프로그램이다. 개방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운영주체와 시설, 프로그램 대상자가 폐쇄된 형태가 아닌 개방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프로그램의 운영은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관련 민간단체가 함께 담당하며, 프로그램 사용 시설 역시 정부와 민간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함께 사용하게 된다. 또한 새터민 여성은 전용시설에서 합숙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희망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은 하위의 개별적 프로그램을 갖는 혼합형 프로그램이며, 단계적 순서가 존재하는 위계형 프

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적용 대상자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받는 진행과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적용프로그램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사회교육기관의 목적에 합당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학습자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수 과정을 의미한다.

넷째, 지역사회 수준의 프로그램이다. 새터민 여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이들이 정착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의 성격과 정착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수준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는 새터민 여성이며, 제공의 구체적인 주체는 사회복지관 등 민간단체, 한국노동교육원, 노동연수원,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회교육 관련 기관이며, 그 외 일반대학교 및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민간기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터민 여성의 교육 및 안정적 정착에 여자대학교에서 나서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 4. 집단프로그램 교육 및 관리 예산

본 장에서는 새터민 여성 100명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그러한 집단프로그램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제안하고자 한다.

##### 4.1 주거환경 관련 예산

새터민 여성을 위한 주거 환경은 안정적인 정착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심신의 편안함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주거 환경은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대량으로 발생한 새터민 여성들이 일정 기간 주거하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임시 주거환경, 즉 조립식 건물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단기 건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립식주택은 외장 마감재를 무엇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건축비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주거면적은 28.5㎡ (평수로 환산하면 28.5㎡ ÷ 3.3 = 약8.64평)로 고시되어 있다. 따라서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00명 × 28.5㎡) ÷ 3.3 = 864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립식주택 1채당 4명씩 거주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100명을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면 25채 조립식주택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1인당 8.64평보다 적은 8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4명씩 거주한다면 32평의 조립식주택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32평 × 25채 = 800평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기준으로 조립식주택의 총건축비는 800평 × 2,500,000원 = 2,000,000,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택건축비용을 1회 집단프로그램 예산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으로 실시하는 새터민 여성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새터민 여성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건축비용은 예산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크지 않을 것이다.

조립식주택의 운영비용은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 즉 ① 전력비, ② 수도료, ③ 가스비, ④ 수선비 및 ⑤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립식주택의 운영비용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겠지만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평균 200,000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1]. 따라서 조립식주택의 운영비용은 월 평균 200,000원 × 25채 = 5,000,000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집단프로그램을 6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5,000,000원 × 6개월 = 30,000,000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4.2 급식활동 지원 예산

급식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비이다. 현재 전·의경에게 제공되는 1식 식사비용이 2,052원이고, 초등학생에게 제공되는 1식 식사비용이 2,580원이다. 그리고 중학생에게 제공되는 1식 식사비용이 3,250원이고, 미국병사에게 제공되는 1식 식사비용이 3,795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에게 있어서 급식활동은 심신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1식당 2,500원을 가정하여 발생비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인당 식사비용 2,500원 × 3식 = 7,500원(일)
- ② 100명 × 7,500원(일) × 30일 = 22,500,000원(월)
- ③ 22,500,000원(월) × 6개월 = 135,000,000원

식품위생법 제52조에 의하면, 한 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는 100명을 집단급식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1명과 급식보조원 5명이 필요하며, 월 8,500,000원의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영양사 1명 × 2,000,000원 = 2,500,000원(월)
- ② 급식보조원 5명 × 1,200,000원 = 6,000,000원(월)
- ③ 8,500,000원(월) × 6개월 = 51,000,000원

재료비와 인건비 외에 급식활동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매월 발생하는 재료비와 인건비의 합계금액 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3,000,000원(6개월 18,000,000원) 정도 예비비로 준비하는 것이 운영상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급식 활동 예산에 필요한 총예산은 식사비 135,000,000원 + 인건비 51,000,000원 + 예비비 18,000,000원 = 240,000,000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4.3 집단프로그램 교육 진행 예산

집단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 진행 예산은 직무교육 비용, 통일교육 비용, 교육관련 예비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직무교육은 새터민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쉽게 취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구체적인 직무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조사를 통해 확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간 직무교육을 통해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교육을 위해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① 1일 6시간 × 5일 × 10,000원 = 300,000원/주 × 4주 × 6개월 = 7,200,000원(1인당)
- ② 100명 × 7,200,000원 = 720,000,000원

그러나 이러한 직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새터민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 대학교, 산업인력관리공단, 생산성본부 등에 종사하는 많은 교육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를 통해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새터민 여성이 원하는 직무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한 후, 그들이 선호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만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새터민 여성이 쉽게 적용하는 직업분야가 간호조무사, 피부미용 관련 업종, 식품 관련 업종(가령, 바리스타 등)으로 나타났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터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북한과 차이가 발생하는 종교, 문화,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교육을 별도의 기간을 정해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직무교육과 병행하여, 특히 주말을 활용하여 한국 국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거나 여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한국 국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위해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① 1회(차량 3대, 체험활동비, 기타비용 포함) × 1인당 5만원 × 100명 = 5,000,000원
- ② 12회(월 2회 6개월 추진) × 5,000,000원 = 60,000,000원

물론 이러한 통일교육을 직무교육과 연계하여 단독적

으로 실시·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단체,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단체를 통해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방향을 갖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새터민 여성만의 사고로 고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의 정확성에 대해 일정수준에서 벗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직무교육과 통일교육에서 발생하는 전체금액에 대해 10%의 예비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무교육비용 720,000,000원 + 통일교육비용 60,000,000원) \times 10\% = 78,000,000원$$

따라서 집단프로그램 교육에 필요한 총예산은 직무교육비 720,000,000원 + 통일교육비 60,000,000원 + 예비비 78,000,000원 = 858,000,000원 정도로 예측된다.

#### 4.4 집단프로그램 교육 관련 관리 및 지원 예산

새터민 여성이 6개월간 직무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자발적으로 생활하기 이전까지는 그들에게 교육기간 동안 교통비, 잡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직업훈련비 차원에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새터민 여성에게는 일정기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정착금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별도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100명 \times 5,000원/1인) \times 30일 \times 6개월 = 90,000,000원$$

직업훈련비에는 의식주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개개인이 사용해야 할 잡비를 교육기간동안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터민 여성들로 구성된 지역의 경우 여러 가지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안정을 주고, 체계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리직원, 가량 심리상담 직원, 관리(행정, 시설 담당)직원, 보안요원 등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터민 여성들로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왜곡된 의식으로 집단화

된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이 6개월 집단생활을 하는데 있어 심리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거나 생활의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심리상담 직원  
1명 × 2,000,000원 = 2,000,000원(월)
- ② 관리(행정, 시설 담당)직원  
1명 × 2,000,000원 = 2,000,000원(월)
- ③ 보안요원  
2명 × 1,500,000원 = 3,000,000원(월)
- ④ 7,000,000원(월) × 6개월 = 42,000,000원

따라서 집단프로그램 교육 관리 및 지원 예산에 필요한 총예산은 직업훈련비 90,000,000원 + 보안·관리비 42,000,000원 = 132,000,000원 정도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6개월 동안 100명을 기준으로 집단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총예산은 <Table 2>와 같이 3,260,000,000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예산 항목 중 주택신축예산은 1회성 예산이므로 새터민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1,260,000,000원 정도이다. 그러나 집단프로그램 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면 실제 발생비용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The cost for the group program operation

| Items                                   | Cost            |
|---|-----------------|
| Prefabricated housing construction cost | ₩ 2,000,000,000 |
| Housing-related cost                    | ₩ 30,000,000    |
| Feed cost                               | ₩ 240,000,000   |
| Group program education cost            | ₩ 858,000,000   |
| Education Management and Support cost   | ₩ 132,000,000   |
| Total Cost                              | ₩ 3,260,000,000 |

## 5. 결론

한국 사회에 새터민 여성이 정상적으로 정착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지원금과 지원프로그램을 노동시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 시도와 추진과정에서 민간단체인 대학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새터민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직무교육과 정착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즉 100여명의 새터민 여성을 집단으로 흡수시키면서 한국 사회에 조기정착을 위한 6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실정이므로 연구내용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통일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확대하여 대량으로 발생할 새터민을 정착방안을 모색하거나 새터민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무교육프로그램의 종류를 조사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REFERENCES

- [1] Sook-Im Kim, Study on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Needs for Social Adjustment and Methods for Support of Non Government Organizations, Soongsil University, 1999.
- [2] Young-Kum Kim, Study on Policy Direction of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institutional Coope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1.
- [3] Byeong-Cheol Jeong, The Study of Supporting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 Inha University, 2008.
- [4] Kyung Kim, A ssudy on the North Korea Refugees Promote Adaption in the South Korea Society,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2009.

- [5] Ho-Sung Park, A study of the Problem Concerning the Support on the Settlement of North refugees to South Korean Society,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trategy, 2004.
- [6] Jin Shin, Korean Moshav Model for North Korean Refugee,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ol.22, No.2, 2010.
- [7] Ha-Hyeon Seong, A Study of Effect that Social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women,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2011.
- [8] Jang-Ho Cha, Study on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people who are defected from the North Korea, 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2010.
- [9] Ki-Young Lee, Kyung-Ae Yoon, Community Re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for Facilitating North Korean Refugees' Resettlement in Loc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5, pp.103-130, 2003.
- [10] Ministry of Unification, <http://unikorea.go.kr>
- [11] Naver intellectuals, <http://www.naver.com>

### 이선표(Lee, Seon Pyo)



- 1988년 2월 : 중앙대학교(학사)
- 1990년 2월 : 중앙대학교(석사)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박사)
- 1997-33월 ~ 2002년 8월 : 대원대학교 교수
- 2002년 8월 ~ 현재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통일정책, 교육정책, 세무회계, 재산세법 등  
 · E-Mail : splee@kiwu.ac.kr

### 고훈준(Kouh, Hoon Joon)



- 1998년 2월 : 인하대학교 (학사)
- 2000년 2월 : 인하대학교 (석사)
- 2004년 2월 : 인하대학교 (박사)
- 2004년 ~ 현재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컴퓨터 음악, 음악검색, 웹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등

· E-Mail : hjkouh@kiwu.ac.kr